

제조업 고용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업종 검토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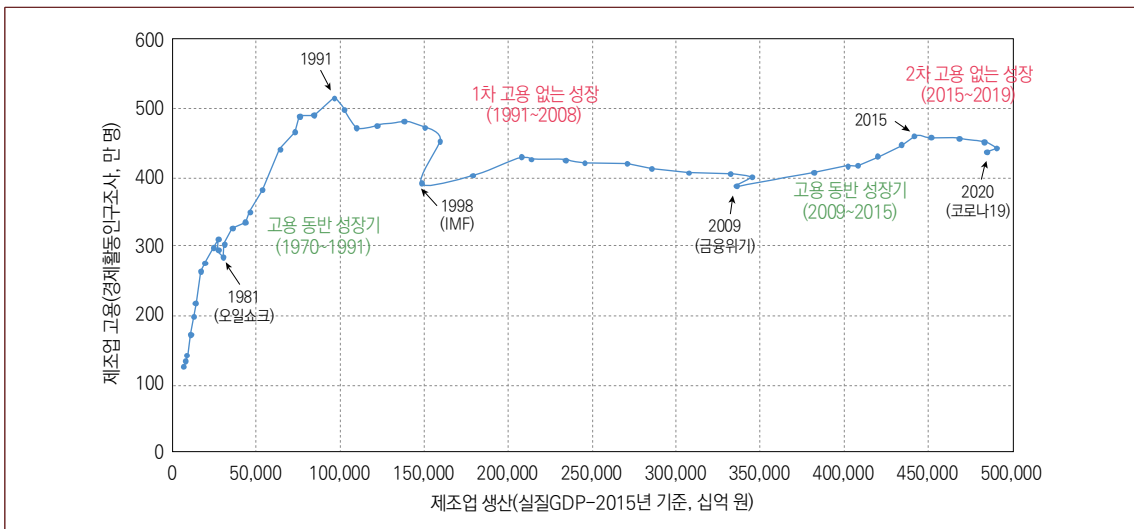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제조업 고용조정 폭이 크지 않음.
 - 고용이 즉각적으로 감소한 서비스업과는 달리, 제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감소 폭이 작아 단기적 생산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흡수하는 완충재 역할을 함.
 - 제조업 고용은 단기적 불황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나, 생산 전망이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일회성의 대규모 고용 감축을 보인 후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패턴을 보임.
- 제조업은 장시간 근로를 통해 중상위 노동소득을 얻을 수 있는 중산층 일자리를 제공
 - 특히 20~30대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해당
- 제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신산업, 수출 주력 제조업과는 독립적인 '일자리 제조업' 분류를 사용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제조업 내 일자리 순증을 기대할 수 있는 세부 업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을 기획하는 방향을 제안
 - 제조업 전체 고용이 최근 정체된 와중에도 꾸준한 고용 상승이 확인되는 세부 업종 존재
 - 수출 주력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 의약품, 의료용기기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 순증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존재하며, 전자, 자동차 업종의 고용 정체를 해소할 방안은 별도 모색 필요
 - 수출 비중이 낮은 비주력 산업 중에서 전기장비, 특수기계, 정밀기기,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일자리 확대 전략의 추진 가능
 - 따라서 일자리 제조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 식료품 제조업을 들 수 있음.
 - 한편, 2013년의 철강, 2017년의 조선과 같은 대규모 고용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및 구조조정 리스크 관리 필요

1. 서론

■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추세

- 최근 제조업에서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음.
 - 2015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부가가치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하락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다시 진행 중임(〈그림 1〉 참조).
 - 이는 1991~2008년 사이의 1차 '고용 없는 성장' 시기 이후 잠시 사라졌다가,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현상
- 단순히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순증가를 정책적 목표로 삼기 이전에, 제조업 일자리가 가진 고유의 장점을 확인할 필요

〈그림 1〉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자료: 통계청 KOSIS, 가로축, 국민계정 실질GDP, 세로축,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1970~2020.

■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략의 일원화 정책 기초

-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 육성 추진체계로서 인재양성사업이 다각도로 진행 중
 -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빅3(BIG3) 분야 등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중기부 등 다수의 부처가 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2021~22년 예산을 편성
 - 인재양성사업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산업 성과 창출 단계에서의 기업 맞춤형 전문생산인력 육성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
 - 신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양성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노동자 포용적 성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탈동조화(decoupling)되는 상황에서, 생산 확대와 고용 창출을 동일한 산업에서 기대하는 일원적 정책 기조가 최선인지를 고민할 필요성이 대두
 -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부가가치, 수출, 고용의 동반 증가로 나타나지 않기 시작한 배경에서, 제조업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세부 업종이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검토할 필요

▣ 본 원고는 제조업 고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세부 업종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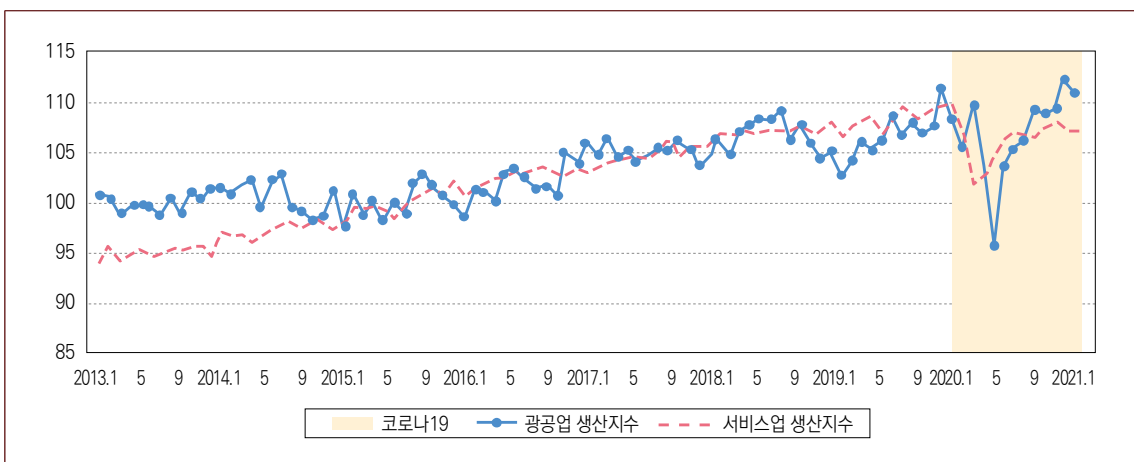
- 본 원고에서는,
 - (1) 제조업 고용변동의 장·단기 특성을 분석한 후,
 - (2)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조업 일자리 특징을 확인하고,
 - (3) 고용 순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제조업 내 세부 업종을 ‘일자리 제조업’으로 제시
- 신산업, 수출 주력산업, 고위기술 산업과는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일자리 제조업 검토
 - 신산업 및 수출 주력 제조업이 아니면서도 일자리 순창출이 기대되는 업종이 존재
 - 세부 업종마다 수출, 부가가치, 고용의 성장이 차별적이므로, 생산과 고용을 독립적인 목표로 설정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이 더 적합할 것

2. 코로나19 생산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제조업 고용

▣ 생산지수로 확인한 코로나19의 생산충격은 제조업에 더 크게 발생

-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생산지수는 제조업에서 큰 폭으로 하락함.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한 광공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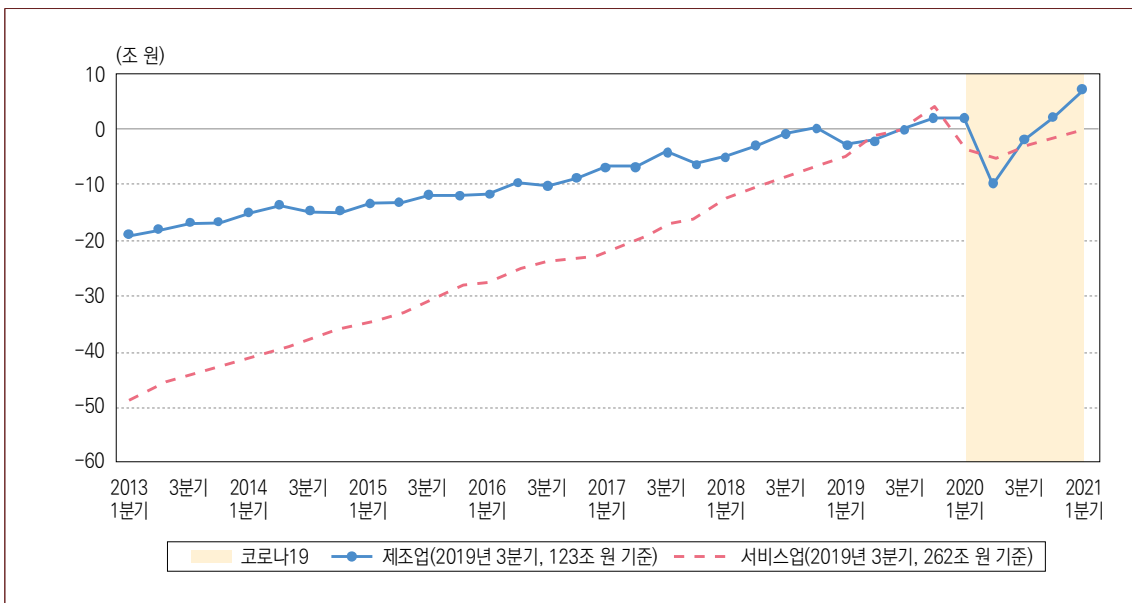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전 산업 생산지수, 2013.1~2021.2(2015년=100 기준).

- 제조업과 광업을 포괄하는 광공업 생산지수는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 109.9에서 95.6으로 13%포인트 하락
-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20년 1월에서 3월 사이 110에서 101.8로 7.5%포인트 하락에 그침.

■ GDP로 확인한 코로나19의 생산충격 또한 제조업에 더 크게 발생

- 제조업은 2019년 4분기 실질 GDP 125조 원에서 2020년 2분기 113조 원으로 12조 원(9.6%포인트)의 생산 감소 폭을 보였으나, 서비스업은 2019년 4분기 265조 원에서 2020년 2분기 256조 원으로 9조 원(3.4%포인트)의 생산 감소를 보임.

〈그림 3〉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실질 GDP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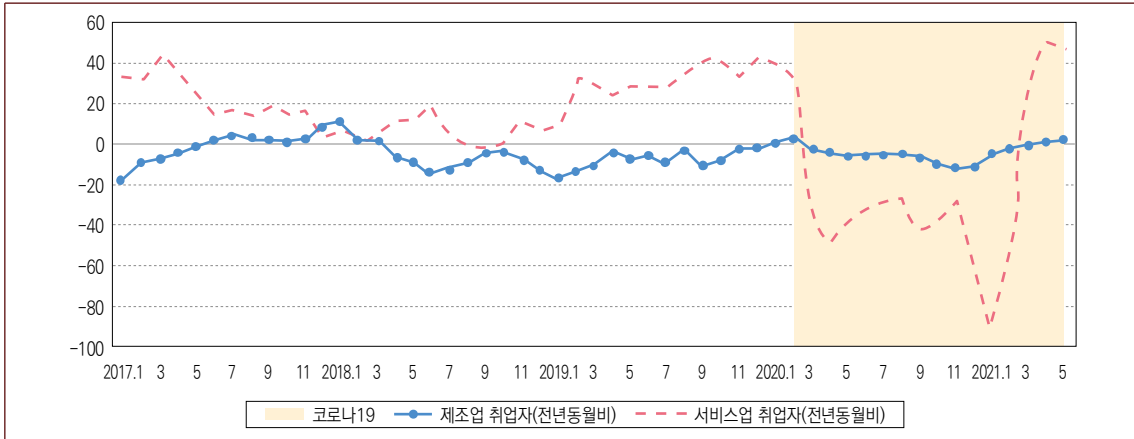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국민계정, 실질 분기 GDP, 2013.1분기~2021.1분기(2019년 3분기 = 0 기준).

■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제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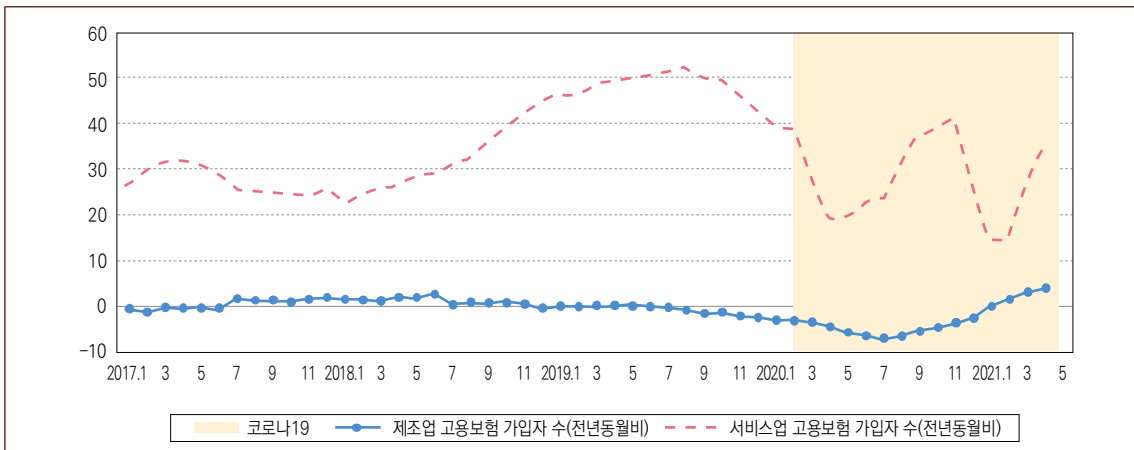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생산 충격은 제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나, 고용 충격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산
 - 〈그림 4〉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 동안 제조업 고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서비스업의 고용은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 〈그림 5〉의 고용보험통계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도, 제조업의 고용은 2019년 12월에서 2020년 8월까지 5만 명(1.5%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다가 회복하였으나 서비스업 고용은 2020년 4월과 2021년 1월 25만 명(2.6%포인트)의 고용 증가 폭이 하락

〈그림 4〉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변화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013.1~2021.5.

〈그림 5〉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피보험자 수 변화



자료: 고용보험 EIS, 피보험자 수, 전년동월비, 2013.1~2021.5.

3. 제조업 고용의 장·단기 변동의 특징

■ **제조업 고용은 단기 충격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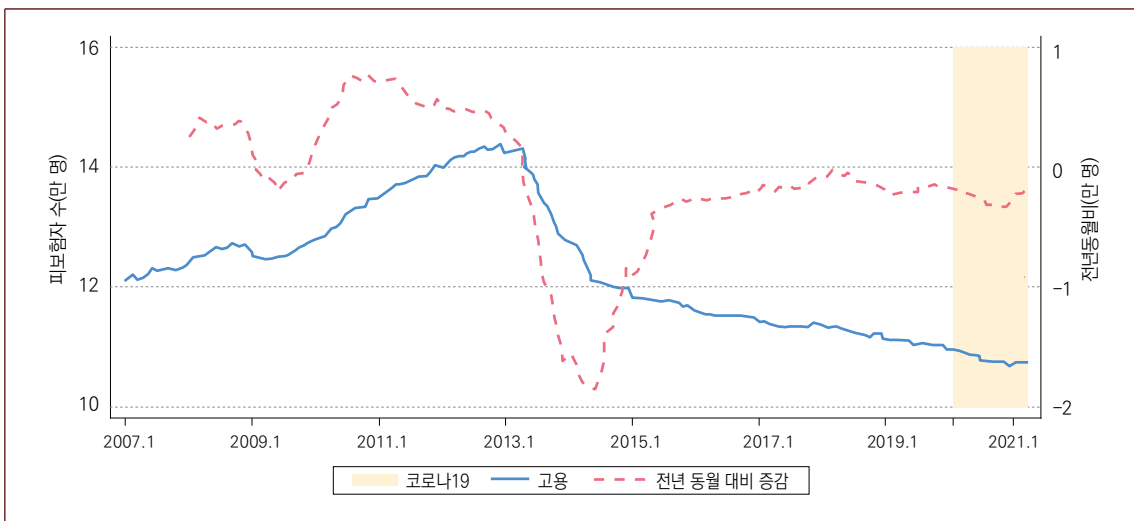
- 제조업 고용은 작은 변동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그 충격이 누적되어 산업 구조조정을 가져올 시 큰 폭의 분절적인 고용 감소를 보임.
- 노동 비축(labor hoarding)을 하는 제조업은 코로나19 생산 충격을 고용으로 전파하지 않아, 일시적인 경제 위기에 대하여 부정적 충격의 확산을 흡수하는 완충재 역할을 함.
 - 생산공정이 길고, 재고 및 현금흐름 관리를 상시적으로 하며, 숙련 노동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고용을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조정하는 이득보다 향후 경기회복 시 재가동이 지연되어 초래되는 비용이 더 크므로 단기적 충격에는 노동을 비축하는 경향이 있음.

- 해고의 경직성이나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정책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중소기업 노동자가 대부분인 제조업은 근속연수가 6.4년으로 정규직 해고의 어려움이 큰 전기가스업(11.9년), 공공행정(10.8년), 금융보험업(9.3년), 교육업(8.8년)에 비해서는 짧은 편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큰 편이었던 예술·여가서비스(4.0년), 숙박음식(2.0년), 도소매업(3.8년)은 평균 근속연수가 낮지만, 전문과학기술업(4.6년), 정보통신업(6.0년), 건설업(2.7년)도 제조업보다 평균 근속연수가 짧은 산업군에 해당

■ 구조조정 등 장기적 위기 발생 시 제조업 고용은 분절적으로 하락

- 고용보험 DB를 통해 제조업 소분류별 고용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2013년 이후로, 제조업 고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사례는 철강과 조선 두 가지임.
- 2013년의 철강업 고용 충격
 -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으로 인해 철강업종의 구조재편이 불가피한 배경에서, 2012년부터 설비감축과 인력감축을 통한 적자 해소 및 생존 경쟁 돌입
 - 포스코의 경우 2012년 포항 1제강 폐쇄, 2014년 STS 1제강 폐쇄, 2014년 포항 1파이넥스 폐쇄, 현대제철의 경우 2014년 당진 열연 휴지, 포항 전기로 폐쇄, 동국제강의 경우 2012년 포항 1후판 폐쇄, 동부제강의 경우 2014년 당진 미니밀 휴지 등 자구책 마련¹⁾

〈그림 6〉 철강업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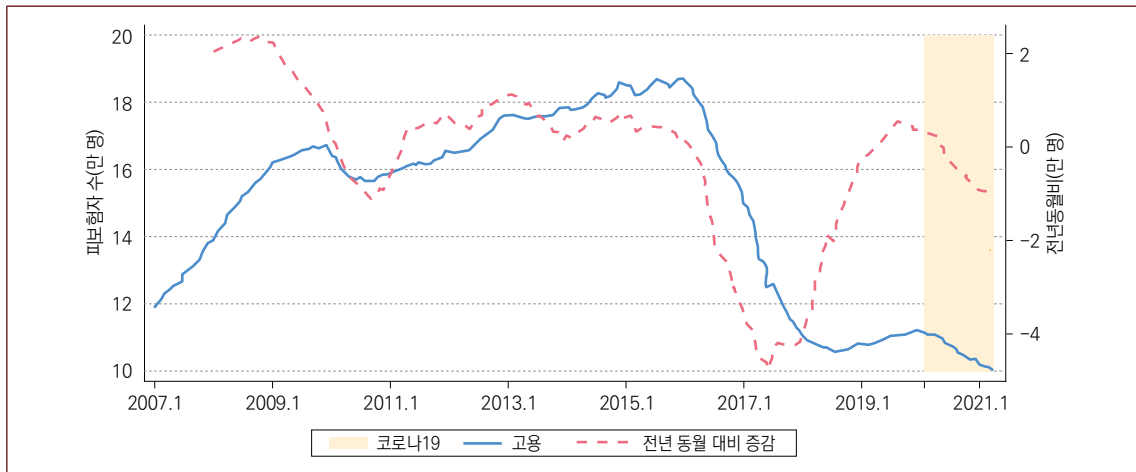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007.1~2021.4.

주: 고용은 피보험자 수를 나타내며, 전년 대비 증감은 (당월 피보험자 수 - 전년 동월 피보험자 수)를 의미. 이후 동일한 그래프에 대한 주석은 동일하므로 생략.

1) 박경서 외(2016), “글로벌 공급과잉기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발전방안”, p. 30.

〈그림 7〉 조선업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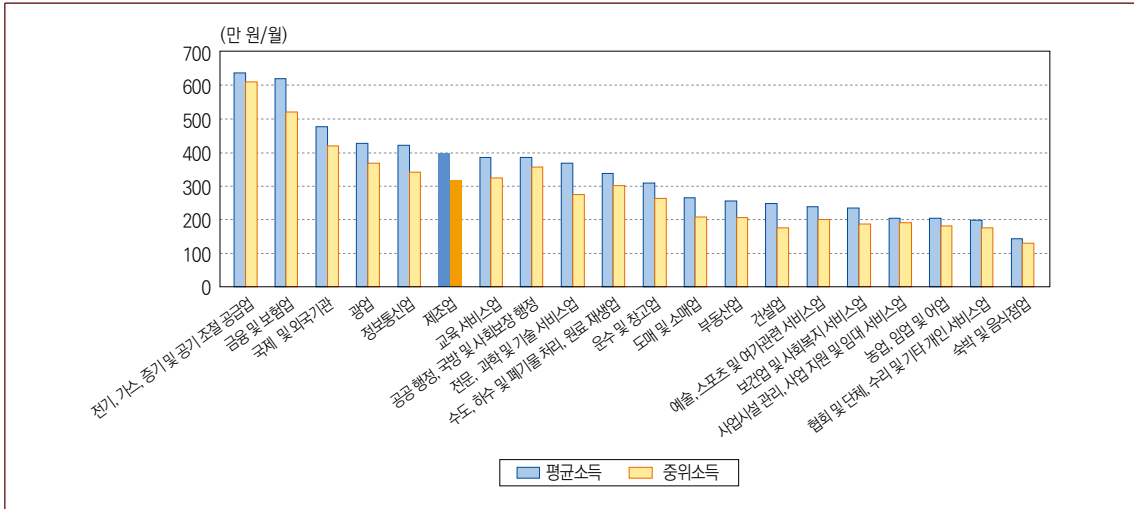
- 철강(KSIC 24 1차 금속 제조업)은 2013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한 해 만에 2만 명 (14%)에 해당하는 고용 급락이 발생하였으며, 이후로도 고용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
- 2017년의 조선업 고용 충격
 - 2016년 우리나라 조선 전체 수주량이 전년 대비 80%포인트 급감하며, 조선 8대 기업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실시됨.
 - 조선(KSIC 311 선박제조업)은 2016년 이후 2년 동안 7만 명(38%)의 고용이 급락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도 선박수주 회복세와는 별개로 고용이 정체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4. 중산층 일자리로서의 제조업 일자리

▣ 제조업 고용은 장시간 근로를 통해 중상위 소득을 벌 수 있는 중산층 일자리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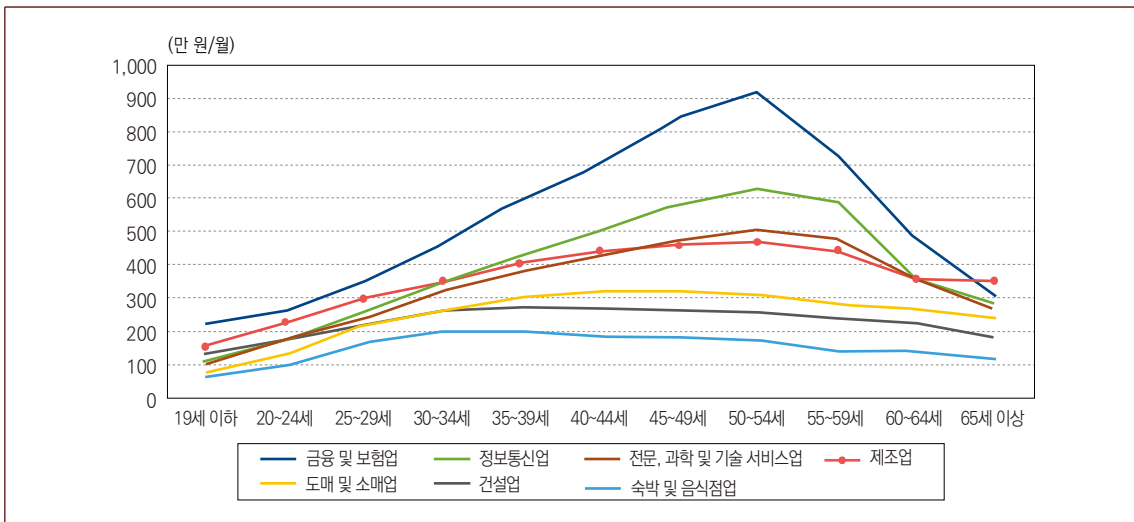
- 제조업 일자리의 급여는 중상위에 해당함.
 - 서비스업 일자리가 ‘전기가스업’, ‘금융업’, ‘정보통신업’과 같은 고소득 전문직과 ‘사업시설 관리’, ‘개인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저소득 일자리로 양분된 반면, 제조업은 중소득 블루칼라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함.
 - 제조업의 노동소득은 세전 월평균 396만 원이며 중위값은 315만 원으로, 20개 산업 대분류 중 평균값 6위와 중위값 8위에 해당함(〈그림 8〉 참조).
- 제조업 일자리는 청년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제공함.
 - 제조업 일자리는 20~30대의 청년노동자에게 금융업 다음으로 높은 노동소득을 제공(〈그림 9〉 참조)

〈그림 8〉 산업 대분류별 평균 노동소득 및 중위 노동소득



자료: 통계청 KOSIS, 일자리 행정통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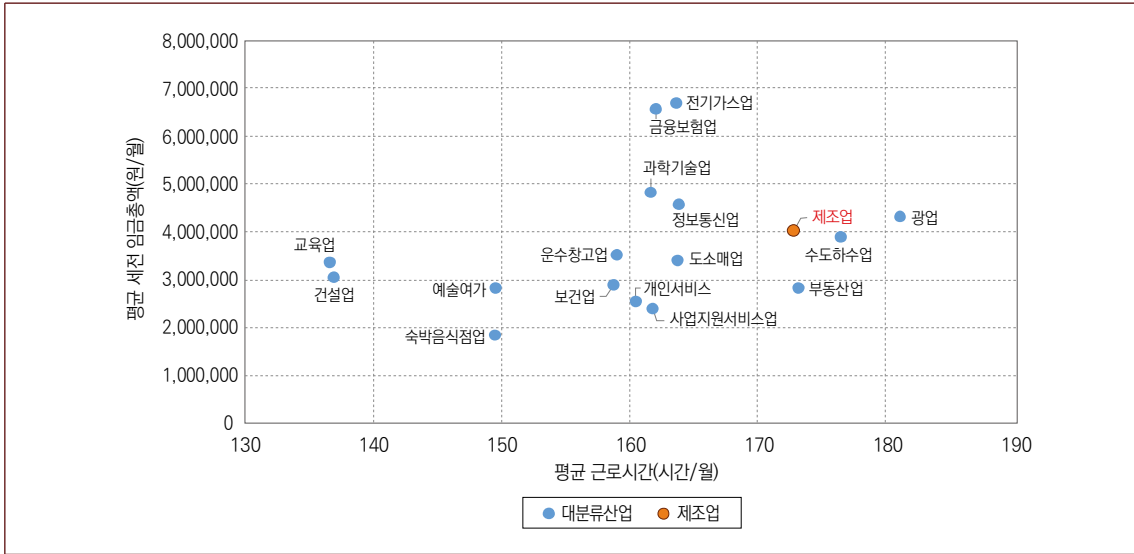
〈그림 9〉 산업 대분류 및 노동자 연령대별 평균 노동소득



자료: 통계청 KOSIS, 일자리 행정통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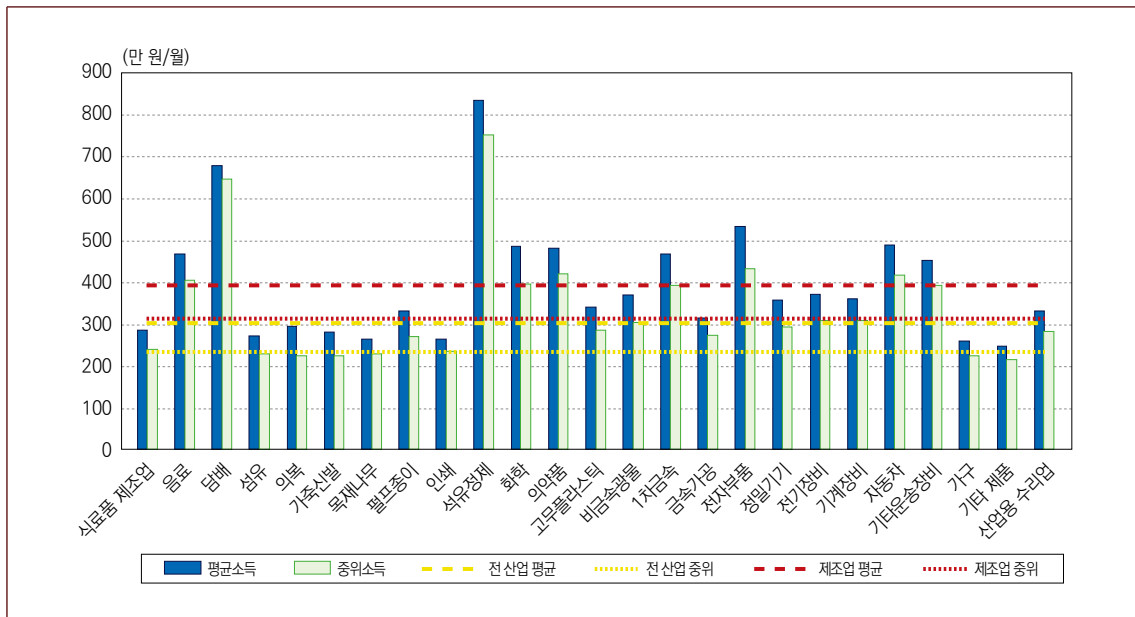
- 다른 산업이 학력·경력·전문성 등으로 인한 높은 임금률(시급)을 바탕으로 고소득을 취득하는 것과 달리,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더 긴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중간수준의 소득을 취득하는 특징이 있음(〈그림 10〉 참조).
- 제조업 세부 업종 중 평균소득이 전 산업 평균소득보다 낮은 곳은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신발, 목재나무, 인쇄, 가구, 기타제품 제조업으로 8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17개는 전 산업 평균에 비해 급여가 높은 일자리에 해당(〈그림 11〉 참조)
- 즉, 제조업 일자리는 학력이나 경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자들도 장시간의 근로를 통해 중상위 노동소득을 벌 기회를 제공하는 중산층 일자리에 해당함.

<그림 10> 산업 대분류별 근로시간과 월급



자료: 통계청 KOSIS, 사업체 노동력조사(1인 이상 사업체 전체), 2020.

<그림 11> 제조업 내 중분류별 평균 및 중위 노동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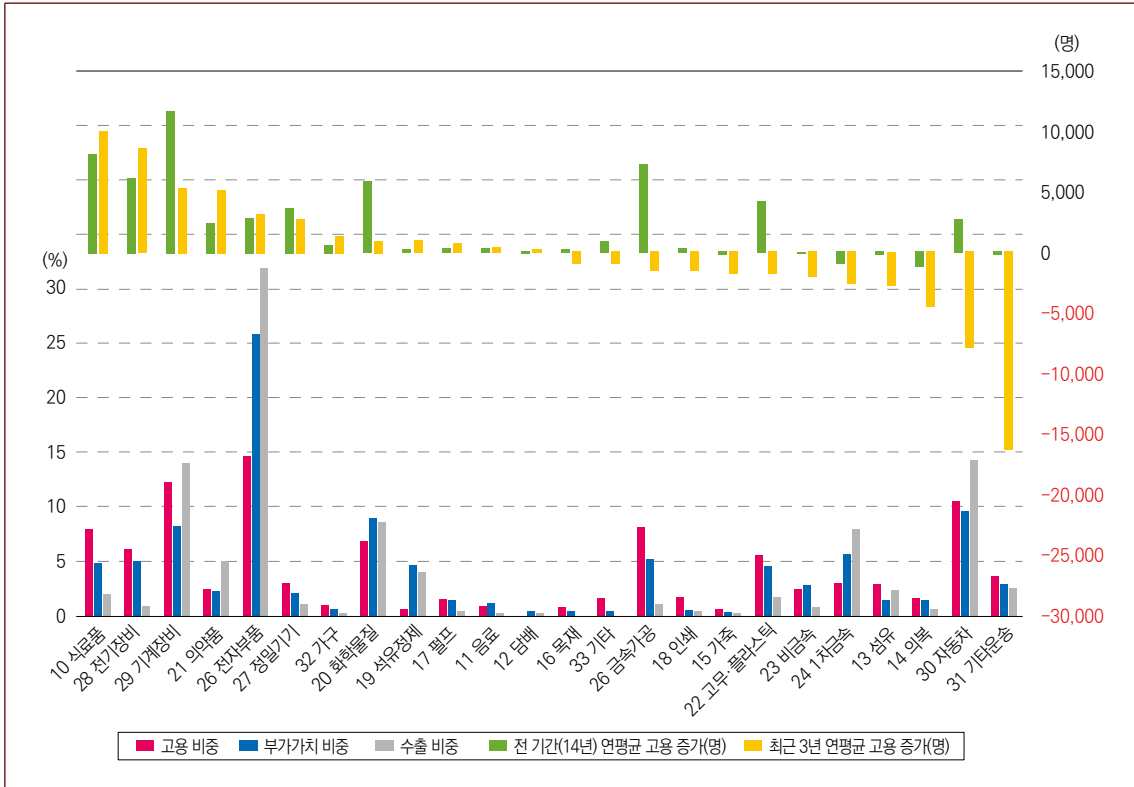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일자리 행정통계, 2019.

5. 제조업 고용 창출을 위한 새로운 관점 : 일자리 제조업

▣ 수출, 부가가치, 고용 비중과 고용 순창출은 독립적인 개념

- <그림 12>의 하부 그래프는 업종별 수출 비중,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을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나타내었으며, 상부 그래프는 연평균 고용증가를 장·단기로 나누어 나타냄.

〈그림 12〉 제조업 중분류별 고용 증가와 부가가치 및 수출 비중 비교



자료: 수출(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20.11), 부가가치(광업제조업조사, 2018), 고용(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020.11) 자료를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연계하여 작성.

-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순서인 전자부품, 자동차, 철강의 경우 최근 3년간 고용 증가는 각각 5위, 하위 2위, 하위 5위에 불과
- 반면, 수출 비중이 2% 이하인 식료품과 전기장비의 경우 최근 3년간 고용 증가가 가장 큰 업종 1위와 2위에 해당함.
- 과거에는 고용 규모가 큰 산업에서 고용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순창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3년의 고용 순창출은 고용, 부가가치, 수출 규모와 대체로 무관함.
 - 〈표 1〉의 첫 번째 행을 보면, 수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고용 규모도 큰 양의 상관관계가 현재에도 뚜렷하게 존재
 - 하지만 두 번째 행의 0에 가까운 상관계수를 보면, 수출, 부가가치, 고용의 규모가 큰 업종에서 단기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동반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수출의 경우 단기 고용 순창출과의 상관관계가 0.0831로 0에 매우 가깝고, 장기 고용 순창출과의 상관관계에 비해 하락의 폭이 커,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더 이상 과거만큼 고용이 창출되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

〈표 1〉 수출, 부가가치, 고용 규모와 장·단기 고용 순창출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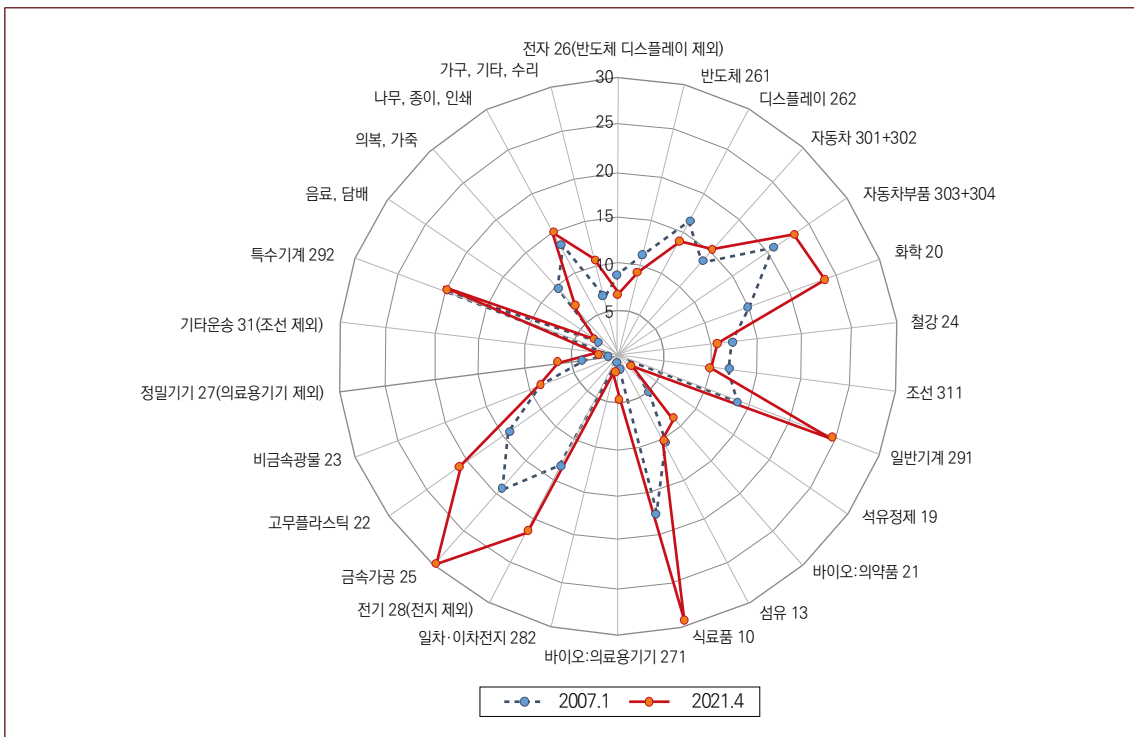
	수출 (2020년 11월 기준)	부가가치 (2018년 기준)	고용 (2020년 11월 기준)
고용	0.7980***	0.8458***	-
단기 고용 순창출 (최근 3년)	0.0831	0.1554	0.2018
장기 고용 순창출 (최근 14년)	0.2780	0.3719	0.7246***

주: 단기는 최근 3년 고용 증가, 장기는 최근 14년 고용 증가를 나타냄. 피어슨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과 다른 상관관계를 보임(*** p-value<0.001).

■ 제조업 중 장기적 고용 창출을 보이는 일부 업종

- 최근 14년 동안 고용이 증가한 세부 제조업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나머지 세부 제조업의 고용은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13〉에서 각 업종별로 2007년 고용(파란색) 대비 2021년 고용(빨간색)이 증가하였다면 원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각 나이테는 5만 명의 고용을 뜻함.

〈그림 13〉 제조업 내 고용 증가 세부 업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007.1~2021.4 피보험자 수(만 명).

주: 시계방향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순서(전자부터 일차-이차전지까지)와 수출 비중이 미미한 산업에 대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순서(전기부터 가구·기타·수리까지)로 나열함. 장기적인 고용 순증가를 비교하면, 일차리 제조업이 수출제조업 중에도 있지만 수출과 무관한 제조업에도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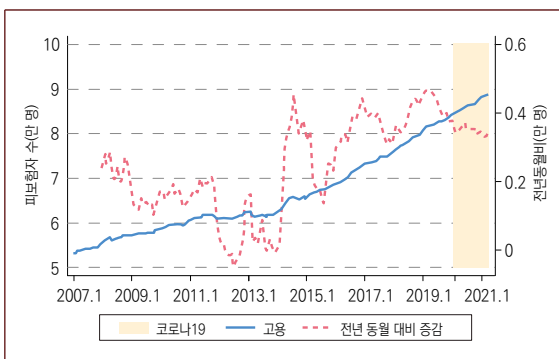
- 수출 주력제조업 중 화학, 일반기계, 식료품 제조업에서만 장기적 고용 상승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주력제조업 고용은 장기 변동 폭이 미미함.
- 수출 비중이 낮은 제조업 중 전기(이차전지 제외),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특수기계 제조업의 고용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비주력 제조업 고용은 변동 폭이 작음.
- 장기적 고용 순증가를 보이는 일자리 제조업 중 화학과 금속가공은 전자제품, 자동차, 건설업 등의 '소재'를 생산하고, 고무·플라스틱과 전기장비는 다른 산업의 '부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높으며, 일반기계와 특수기계는 다른 산업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종

6. 일자리 제조업의 업종별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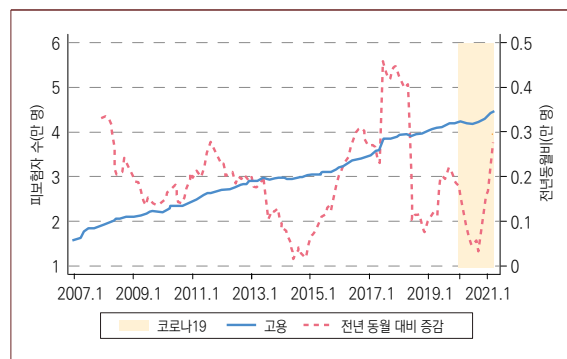
■ 빅3 중 바이오헬스 고용 동향

- 바이오헬스 고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업종임.
- 고용 규모는 2020년 12월 기준 13만 명 정도에 불과하나 1년에 5,000여 명(4%) 정도의 빠른 고용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의약품제조업은 평균월급여 481만 원, 중위 421만 원으로 제조업 내에서도 상위 임금을 제공하는 질 좋은 일자리에 해당함.

〈그림 14〉 의약품 제조업(KSIC 21) 고용 동향



〈그림 15〉 의료용기기 제조업(KSIC 271)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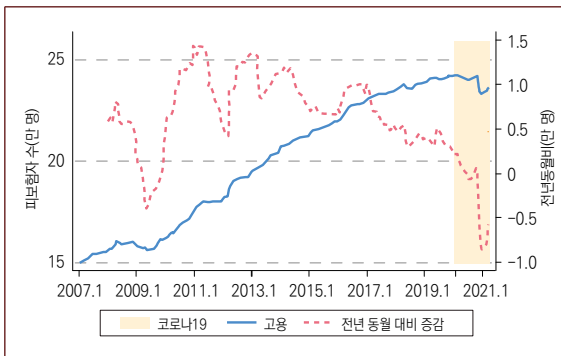


■ 일자리의 꾸준한 증가가 확인되는 업종으로 화학, 일반기계, 식료품, 전기장비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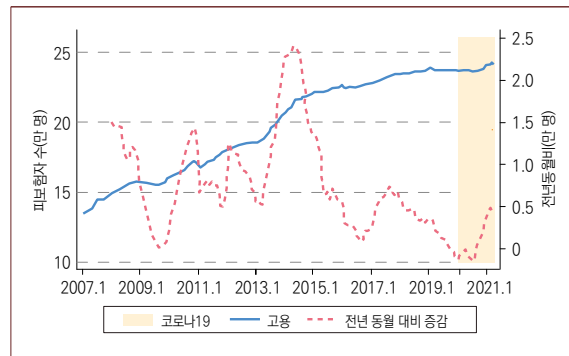
- 화학제품 제조업(KSIC 20)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고용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 14년간 10만 명의 고용을 순창출함.

- 일반기계(KSIC 291)는 2018년 이후 고용 상승 폭이 완만해지기는 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고용이 증가하는 업종이며 화학과 마찬가지로 최근 14년간 10만 명의 고용을 순창출함.
- 식품제조업(KSIC 10)의 경우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용과 부가가치의 비중은 큰 편에 속하는데,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고용 확대의 측면에서 기대 가능한 업종임.
 - 코로나19 확산 전후인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고용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다시 고용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14년간 10만 명의 고용을 순창출하였음.
- 이차전지를 제외한 전기장비(KSIC 281, 283, 284, 285, 289)는 꾸준히 고용 상승세를 이어가는 업종에 해당하며 최근 14년간 9만 명의 고용이 증가
 - 전기장비 업종은 가전과 같은 소비재보다는 전동기, 변압기, 전선과 같은 전기부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제조업, 발전업, 건설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역량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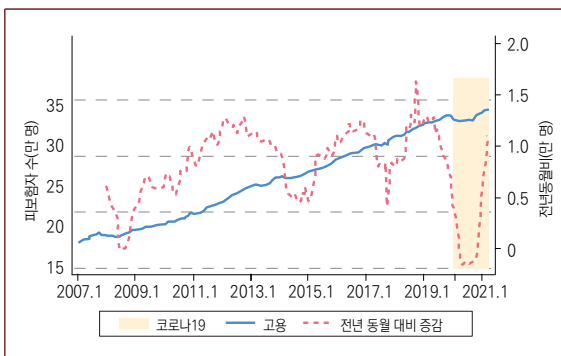
<그림 16> 석유화학(KSIC 20)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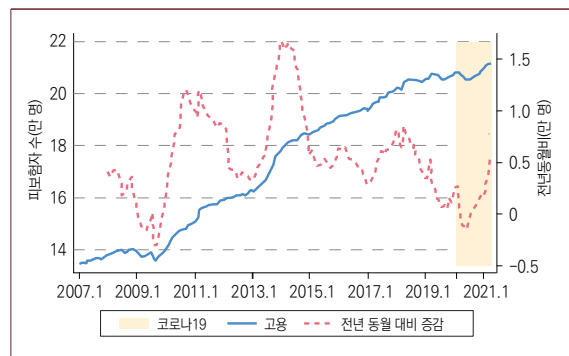
<그림 17> 일반기계(KSIC 291) 고용 동향



<그림 18> 식품(KSIC 10)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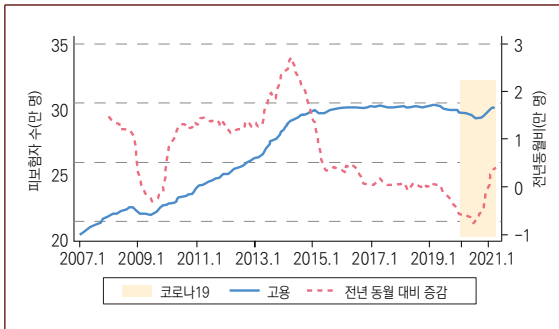
<그림 19> 전기장비(KSIC 28, 282 제외)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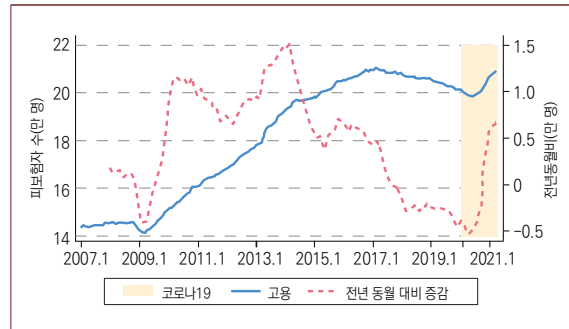
▣ **일자리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었으나 고용 규모가 큰 주요 업종으로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특수기계를 제시**

- 금속가공은 고용과 부가가치 규모가 큰 산업이며 장기적으로 고용 순증가 폭이 크지만, 2014년 이후 고용 증가세가 정체된 모습을 보임.
 - 금속가공(KSIC 25)은 1차 철강의 고용이 대규모로 하락하던 시기에도 하락하는 대신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이 소폭 하락하였다가 곧 바로 반등하여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임.
 - 금속가공업은 전자제품, 자동차, 건설업 등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금속 자재를 주조, 단조, 압연, 절삭, 용접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
- 고무·플라스틱(KSIC 22)은 고용 규모가 크지만, 2017년 이후 고용이 장기적으로 느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코로나19 이후 고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 하락추세를 반전시킨 것인지는 시일이 더 지나야 판별 가능
 - 고무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타이어 생산 비중이 높으며, 플라스틱 제조업의 경우 생활용품에 국한되지 않고 필름 및 시트, 전자제품 내·외장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용 부품 생산도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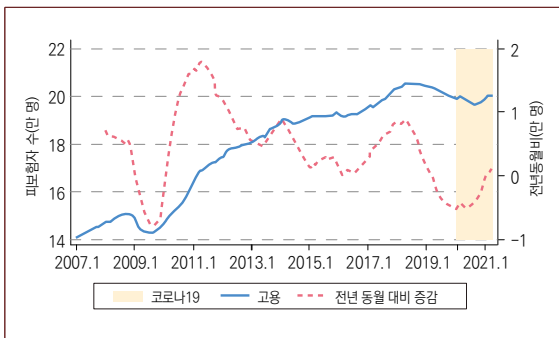
〈그림 20〉 금속가공(KSIC 25) 고용 동향



〈그림 21〉 고무·플라스틱(KSIC 22) 고용 동향



〈그림 22〉 특수기계(KSIC 292) 고용 동향



- 특수기계(KSIC 292)는 고용의 규모가 20만여 명으로 매우 큰 업종에 속하지만, 2018년 이후 고용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고용의 절대적인 규모가 매우 크고 근로소득 또한 높은 편에 속하므로, 제조업 일자리 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일자리 제조업에 해당

7. 결론

▣ 제조업 고용의 특징

- 제조업 고용의 강점
 - 코로나19와 같은 단기적인 생산충격을 생산인력 감축으로 민감하게 전파하지 않는 완충재의 역할
 - 장시간 근로를 통해 청년층도 중상위 노동소득을 얻을 수 있는 중산층 일자리를 제공
- 제조업 고용 순창출을 위한 새로운 업종 분류 프레임 필요
 - 수출, 부가가치, 고용 규모가 큰 업종에서 과거만큼 고용 순창출이 동반되지 않는 경향
 - 제조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할 경우 수출주력 제조업 혹은 신산업과는 독립적인 축인 '일자리 제조업'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 일자리 제조업 제시

- 바이오헬스는 양질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빅3 신산업
 - 아직 고용 순증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지만, 꾸준하고 가파른 고용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장동력화를 통한 질 좋은 민간 일자리의 대량 확보가 가능
- 수출 주력산업 중 화학, 일반기계, 식료품 제조업은 양질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산업
 - 화학과 일반기계는 고용 순창출 양이 충분히 많을 뿐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상위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해당
 - 식료품 제조업은 임금이 낮으나 대량의 고용 확대가 가능할 것이며, 특히 고령층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업종이므로 정책적인 관심을 둘 필요
- 비주력 산업 중 전기,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특수기계 제조업은 대량의 고용 창출이 가능
 - 해당 업종은 제조업 평균 정도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로, 일자리 확대 시 분배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것
- 따라서 일자리 제조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바이오헬스, 식료품 제조업을 들 수 있음.

-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일자리와 레드바이오 일자리는 중상위 소득을 제공하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

길은선 산업고용정책실 | 부연구위원 | egil@kiet.re.kr | 044-287-3152